

# 창원지역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2020. 11

창원상공회의소

# 1. 조사개요

## 1) 조사기간

○ 2020년 10월 12일 ~ 23일

## 2) 조사방법

○ Fax, E-mail(온라인 설문)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3) 설문 응답업체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업체 수(개)	비중
소기업 (종업원 수 50인 미만)	67	56.8%
중기업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51	43.2%
총 응답업체	1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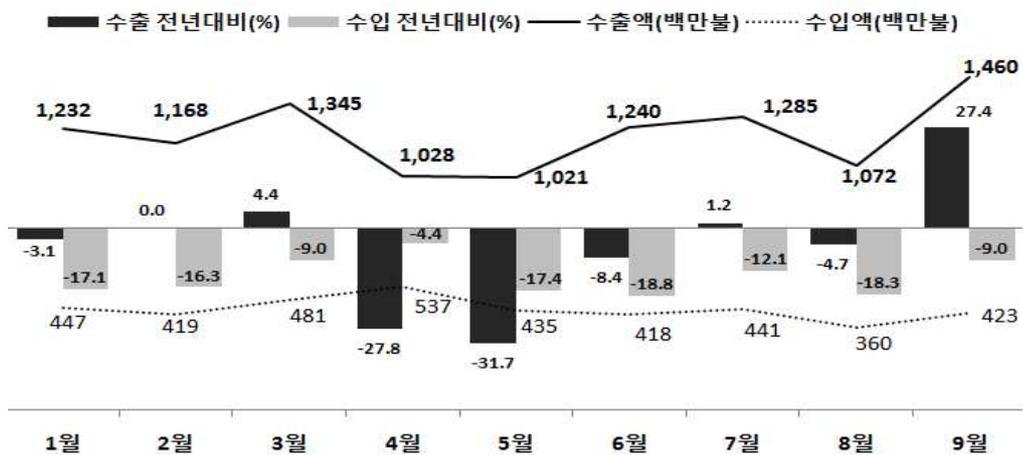
## 4) 조사사항

-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창원산업 현황
- 창원 중소기업 자금수요와 조달방법 및 여건
- 창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실태
- 창원 중소기업 경영실적 및 신용등급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 2. 개 황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치산업 위주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창원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실시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원청업체 생산감소’와 ‘수출지연 및 취소’였음. 두 요인 모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는 후방 협력관계에 있는 산업 및 기업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큼. 원청기업의 생산감소는 1차 협력업체의 수주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곧 2차,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기 때문임.<sup>1)</sup>
- 매출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운전자금 부족에 따른 투자와 채용의 위축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부품 수급 애로와 수입 가격 등 원가상승으로 생산차질은 물론 채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실제로 동 조사에서 응답업체(n=168)의 88.7%가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답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30% 이상 급감했다고 응답했음.

[그림 1] 창원지역 2020년 월별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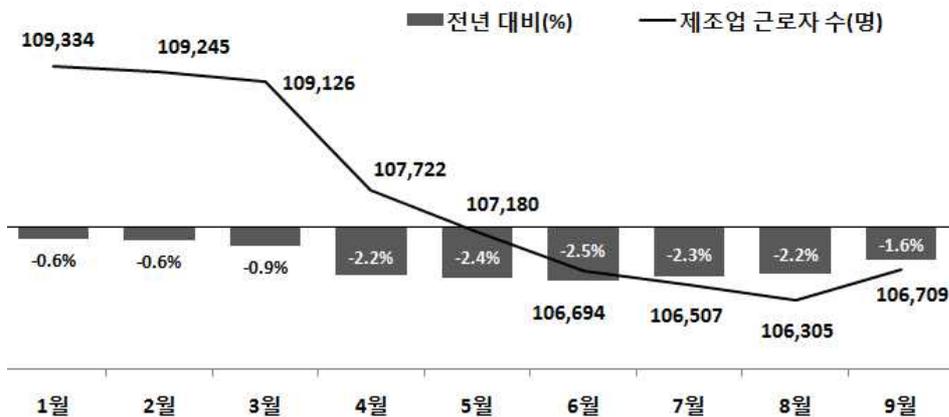


※ 자료 : KITA.Net

1) 창원기업 코로나19 영향과 정부 지원제도 만족도 조사, 창원상공회의소, 2020

- 코로나19를 비롯한 현재의 경제위기에 가장 시급한 지원방안으로 ‘운전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33.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세금감면 및 납부유예’(23.6%), ‘고용유지지원 확대’(16.5%), ‘SOC 확대 등 대규모 재정정책’(9.5%), ‘해외 비즈니스 재개 지원’(4.5%), ‘채용 및 투자촉진 유도’(3.7%) 순으로 답했음. 대체로 시장 또는 비즈니스 확대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책에 비해 현 시점 기업 생존과 생산능력 유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음.
- 2020년 월별 창원 수출입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활동의 위축이 본격화한 4월과 5월의 수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9월의 경우 무역거래가 재개되면서 앞서 거래되지 못했던 수출물량들이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음. 수입실적의 경우, 9월 수출실적과 같이 탄력적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이는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후 이를 가공 또는 조립해 재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의 향후 수출실적 전망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함.
- 2020년 월별 창원 제조업 근로자 수(월말 기준)에서도 4월 들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 3월 10만 9,126명이었던 창원 제조업 근로자 수가 4월에는 10만 7,722명으로 1,404명이 줄었고, 이는 전년과 비교해서도 2.2% 감소한 수입.

[그림 2] 창원지역 2020년 월별 제조업 근로자 수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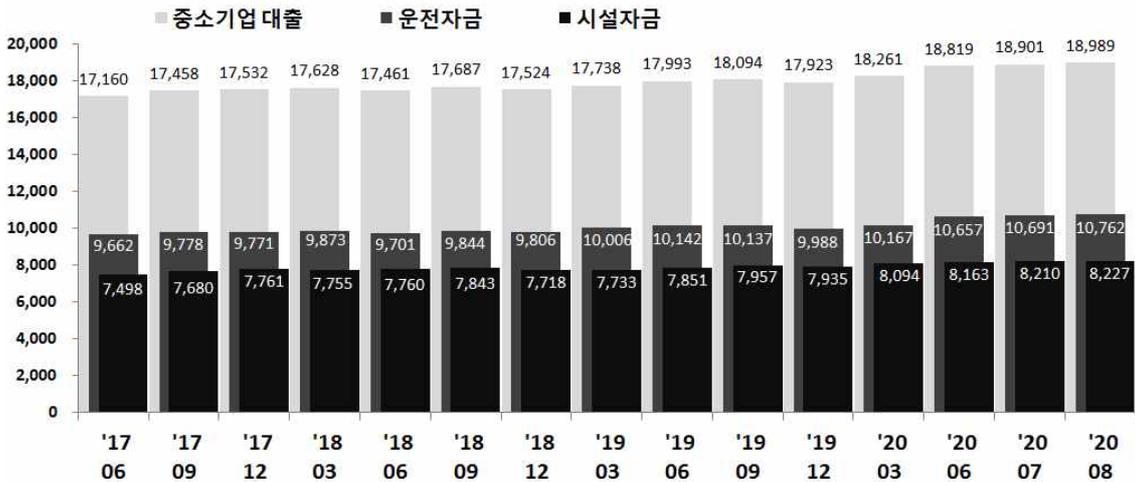
### 3. 창원지역 중소기업 금융실태

#### 1) 창원 중소기업 자금수요와 조달방법

- 경제규모의 점진적 성장과 금리인하 등으로 창원지역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음.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 18조 9,894억 원 중 운전자금은 10조 7,6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시설자금은 8조 2,274억 원으로 4.0% 증가했음.
- 이 중 고정자산 투자 등에 활용되는 시설자금<sup>2)</sup>의 증가에 비해 일반운영 비용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의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창원 주력산업의 오랜 침체와 코로나19 경제위기가 겹쳐 기업 유지에 필요한 운전자금 수요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임.

[그림 3] 창원 중소기업 대출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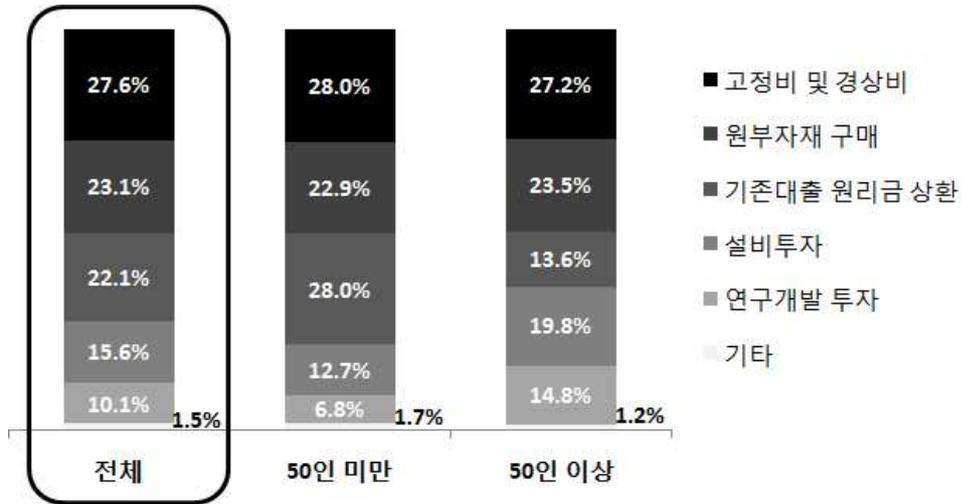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경남본부

#### 2) 중소기업 금융지원 자금활용 용도 구분

- 시설자금 : 공정 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생산 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유통 및 물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조성공사비, 기타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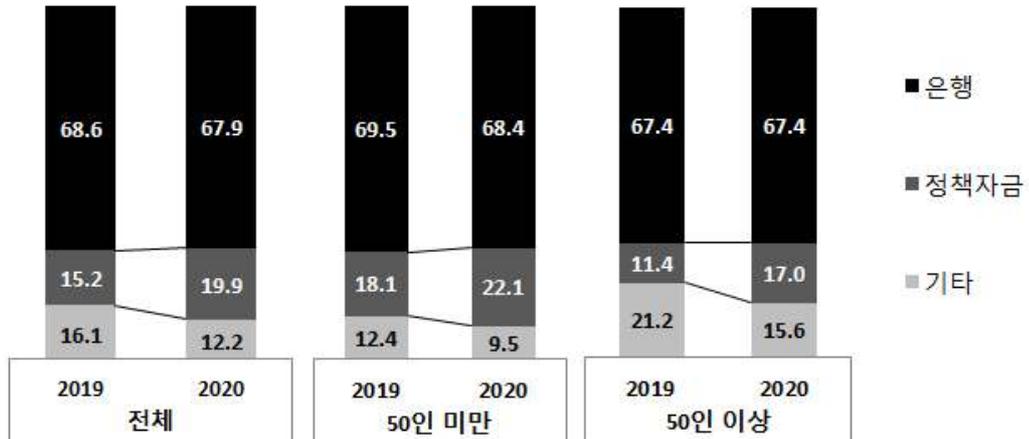
[그림 4]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 (n=118)



- 실제로 창원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 시점 자금수요가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업체의 27.6%가 ‘고정비 및 경상비’로 답했고, 다음으로 ‘원부자재 구매’ 23.1%,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 22.1%, ‘설비투자’ 15.6%, ‘연구개발 투자’ 10.1%, ‘기타’ 1.5% 순이었음.
- 규모별로 소기업의 경우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의 비중이 28.0%로 ‘고정비 및 경상비’와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원부자재 구매’ 22.9%, ‘설비투자’ 12.7%, ‘연구개발 투자’ 6.8% 순이었음.  
중기업의 경우 ‘고정비 및 경상비’(27.2%), ‘원부자재 구매’(23.5%)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설비투자’(19.8%), ‘연구개발 투자’(14.8%),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13.6%)로 응답했음.
- 소기업은 기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자금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 시점 응답업체의 외부자금 원천별 비중을 보면, 전체 외부자금 중 ‘시중은행’ 67.9%, ‘정책자금’ 19.9%, ‘기타’ 12.2%임. 기업의 외부자금 수

급에 있어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시중은행과 기타 외부자금 비중이 0.7%p, 3.9%p 줄었고, 정책자금은 4.7%p 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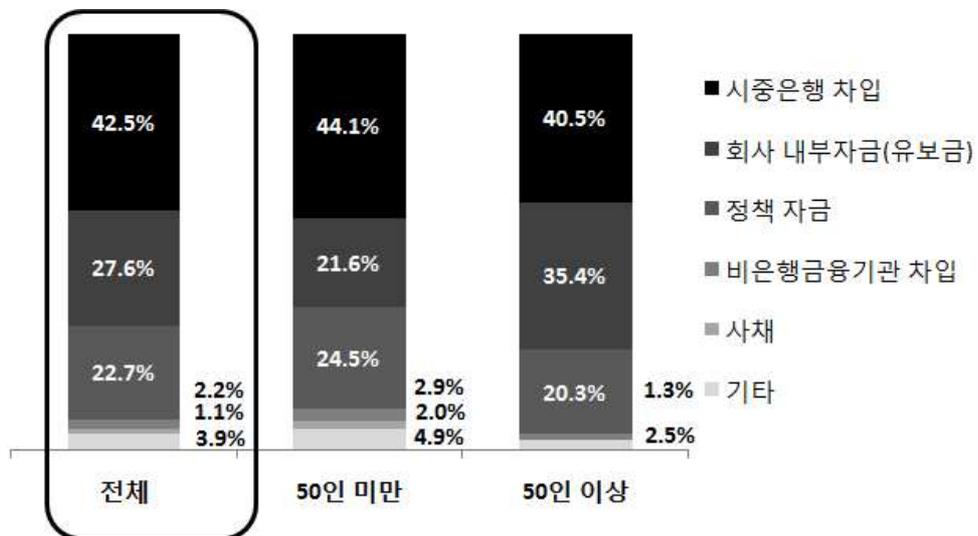
[그림 5] 2020년 외부자금의 원천별 비중(전년 비교) (n=118)



○ 소기업과 중기업 등 규모별로 외부자금의 원천별 성격도 여전히 시중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전년과 비교해 정책자금의 비중이 확대된 모습임.

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의 비중은 3.0%p 증가한 22.1%로, 중기업은 6.6%p 증가한 17.0%로 조사되었음.

[그림 6] 자금 수요에 따른 조달 방법(계획) (n=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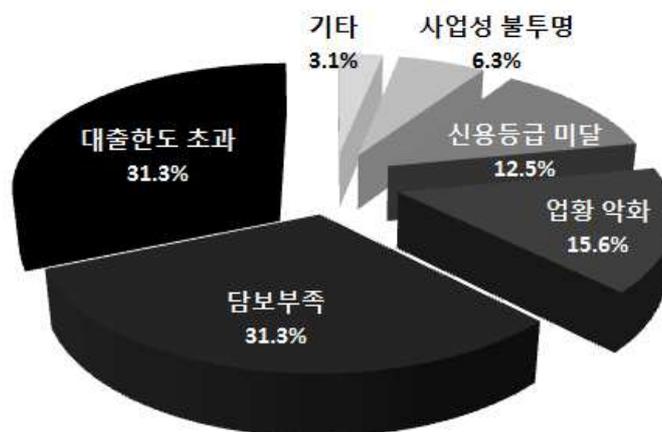


- 기존 자금운용에 이어 신규 자금수요에 따른 조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2.5%가 ‘시중은행 차입’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 내부자금(유보금)’ 27.6%, ‘정책자금’ 22.7%, ‘비은행금융기관 차입’ 2.2%, ‘사채’ 1.1% 순으로 답했음.
- 기존 자금조달과 더불어 신규 자금수요 역시 시중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중은행 차입 다음으로 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24.5%)하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중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자금을 활용(35.5%)하겠다는 비중이 높았음.

## 2) 창원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 올해 신청한 신규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1.6%가 ‘있다’, 78.4%는 ‘없다’로 응답했음. 신규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기업(50인 미만)이 25.8%로 중기업(50인 이상) 16.0% 보다 높았음.
- 올해 신청한 신규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사유는 ‘담보부족’과 ‘대출한도 초과’가 각각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황 악화’ 15.6%, ‘신용등급 미달’ 12.5%, ‘사업성 불투명’ 6.3% 순이었음.

[그림 7] 신규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 사유 (n=25)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각종 재정·금융 지원책으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담보와 신용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단, 일시적으로 매출감소와 담보능력 약화 등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금융권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시중은행의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해야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위험기피적 성향과 경기순응적 대출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해 경기침체기에는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높음.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경기침체기에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금리여건 완화 또는 기존 대출의 연장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침체로 인해 낮아진 담보력과 업황악화 등으로 신규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의 부족함 느끼고 있음.

[그림 8] 은행 대출 시 여건 변화 (2019년 대비) (n=118)



※ 5점 척도를 활용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여건 악화를, 3에 가까울수록 동일한 수준을, 5에 가까울수록 호전을 의미함

- 실제로 2019년 대비 올해 은행 대출 시 여건 변화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금리 여건’은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으로 호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

음. 하지만, ‘신용대출’, ‘대출한도’, ‘전반적 대출’ 등의 여건은 다소 악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신용평가에 있어 투자적격이거나 담보물을 가진 기업의 경우 오히려 좋은 금리조건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이른바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신규 대출수요를 충족시켜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 창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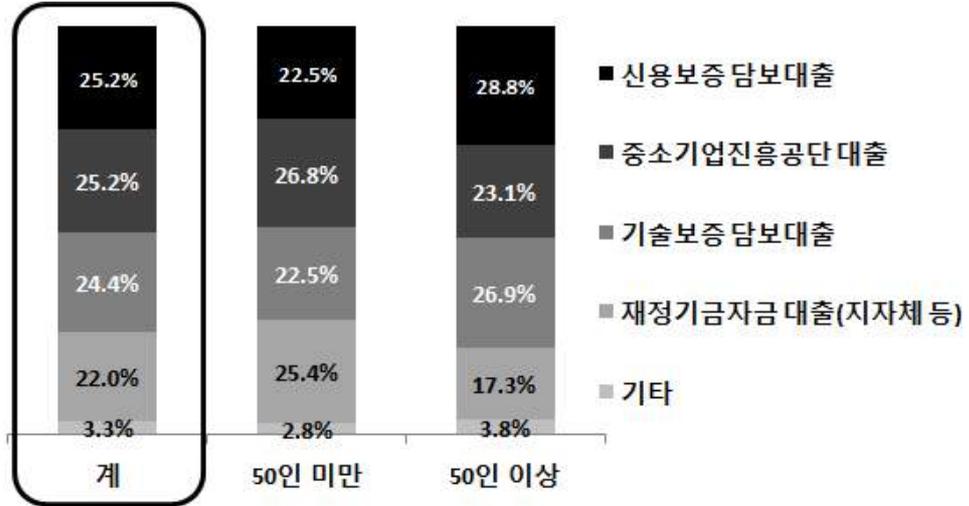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sup>3)</sup>은 공적인 성격의 금융으로 시중은행의 전형적인 대출 형태와 다름. 기존 금융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상당부분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고 있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기존 금융권의 경우 높은 이자, 낮은 한도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음.

금융권에서는 담보력이나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것에 반해 정책자금의 경우 기업의 사업성, 미래성장성,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함.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담보력을 평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금지원신청이 가능함. 이는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볼 때 민간금융기관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기존 금융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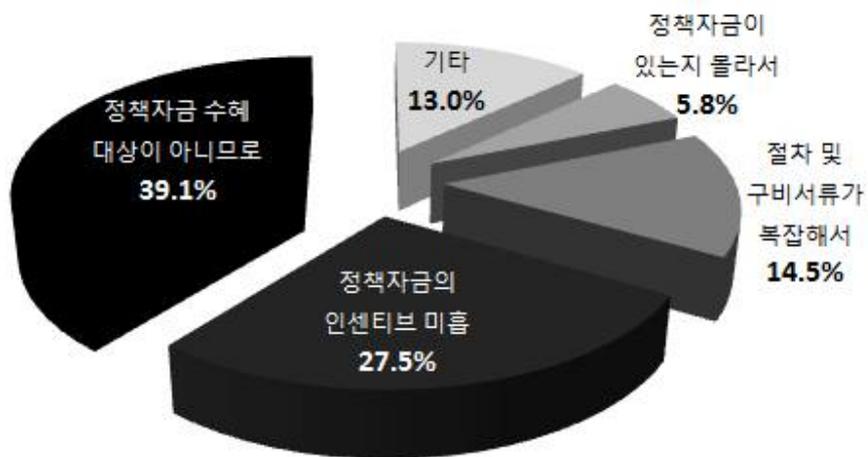
3) 정책자금 종류 : 신용보증서담보대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재정기금자금대출, 온렌딩자금대출(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출 등

[그림 9] 정책자금 대출 기관별 활용 비중 (n=88)



○ 설문에 응답한 118개 업체의 67.8%가 현재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음. 활용하는 기관으로 ‘신용보증 담보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기술보증 담보대출’, ‘재정기금 자금대출’ 등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음. 대체로 소기업의 경우 접근이 쉬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과 ‘재정기금 자금대출’의 비중이 높았고, 중기업의 경우 비교적 지원규모가 ‘신용보증 담보대출’과 ‘기술보증 담보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사유 (n=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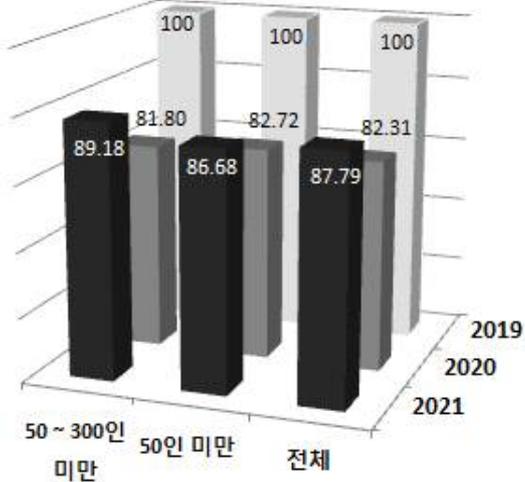
-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경우 그 사유로 39.1%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자금의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 27.5%, ‘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해서’ 14.5%, ‘정책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5.8%, ‘기타’ 13.0% 순으로 답했음.
-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대는 기존 정책자금 미활용 기업들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규모와 신용등급 등이 정책자금 수혜대상에 충족하지 않아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4) 창원 중소제조업 경영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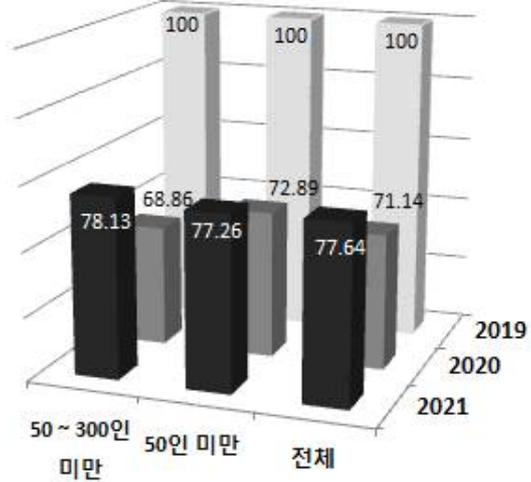
- 경기변화와 밀접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수출입실적과 제조업 근로자 수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 창원 산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경제위기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금융권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들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해지면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기업들도 자금 부족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시기에 따라, 업력 및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금융권을 통해 원활히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창원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의 경영실적을 ‘100’으로 놓고, 매출과 영업이익, 유동성, 산업환경의 항목을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을 지수화해 비교해본 결과 대체로 올해 낮은 수준의 지수를 보인 후 내년 일정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그림 11]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경영실적 전망 (20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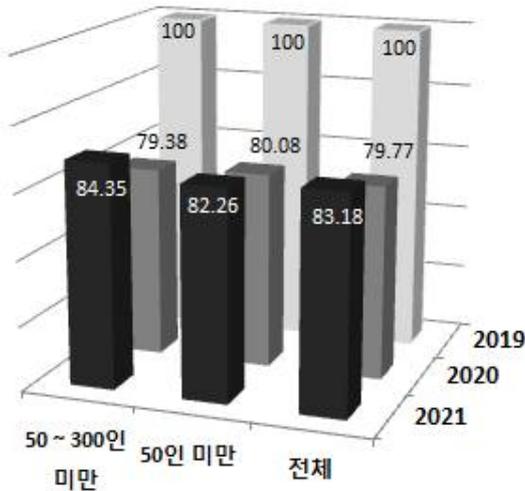
생산(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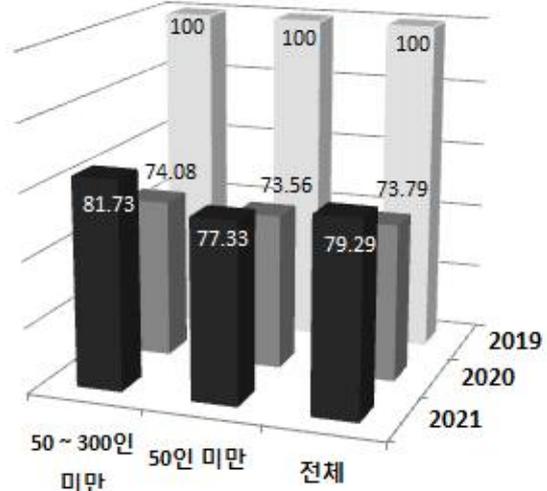
영업이익



유동성(현금지급능력)



산업환경



- 응답업체들은 2019년의 생산(매출)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올해(2020년)는 '82.31', 내년(2021년)에는 '87.79'로 전망했음.  
 소기업(50인 미만)은 올해 '82.72', 2021년은 '86.68'로 전망했고, 중기업(50인 이상)은 올해 '81.80', 2021년은 '89.18'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음.  
 두 기업군 모두 2020년 2분기를 중심으로 매출급감을 경험한 이후 차츰 생산회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하지만 2021년에도 2019년 수준으로까지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회복 속도는 소기업보다 중기업이 다소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2019년의 영업이익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올해 '71.14', 내년 '77.64'로 전망했음. 영업이익 지수는 생산, 유동성, 산업환경 등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규모별로 소기업은 2020년의 영업이익 수준을 '72.89', 2021년은 '77.26'으로 전망했고, 중기업은 2020년 '68.86', 2021년 '78.13'으로 전망했음. 특히 영업이익 부문은 생산·유동성·산업환경 등 타 부문에 비해 특히 낮은 수준의 전망을 내놓았음. 2021년의 경제 전반의 여건 회복에도 영업이익 부문의 회복은 다소 더딜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2019년의 유동성(현금지급능력) 수준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올해 '79.77', 내년 '83.18'로 전망했음. 산업환경 수준은 올해 '73.79', 내년 '79.29'로 전망하고 있음.

#### 5) 창원 중소기업 신용등급 변화

-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 등의 재무항목과 산업환경 등 비재무항목은 중소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용평가 등급<sup>4)</sup>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임. 기업운영에 있어 100% 자기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용평가등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한도와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 한도가 낮게 배정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거절되어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함. 특히 대기업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4) 중소기업신용평가 등급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해 이를 상대적으로 서열화하여 등급을 나눈 지표임. 금융권은 기업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신용평가 항목

		등급 정의
재무 항목 (재무 제표)	수익성	일정기간 동안 경영 성과
	안정성	차입금에 대한 지급능력 및 타인자본의존도 등 측정
	부채상환능력	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 여부
	유동성	기업의 현금지급능력 측정
	활동성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능력 파악
	성장성	일정기간동안의 성장성 측정
비 재무 항목	산업위험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평가
	경영위험	경영관리 능력 및 안정성 체크
	영업위험	영업지원, 구매·생산·판매위험 등 평가
	재무위험	질적 재무위험 평가
	신뢰도	거래 신뢰도 및 업체 신뢰도 평가

※ 자료 : 나이스신용정보

- 기업신용평가는 일반적으로 9개 단위로 구분됨. B등급 이상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거래 및 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소기업신용평가는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에 의해 이루어짐. 재무항목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해 측정하고, 비재무 정보는 산업위험 등 재무제표 이외의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기업규모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에 산정되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의 비중은 외감법인의 경우 각각 70%와 30%, 비외감법인의 경우 60%와 40%, 중소기업의 경우 30%와 70%임.
- 2017년 이후 금융권 활용을 위해 신용평가를 거친 창원지역 중소제조업 1,500개 사(D·R·NR등급 제외)의 2020년 신용평가등급 분포를 보면, 전체 81.1%가 'BBB~B'등급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CCC~C'등급이 14.3%, 'AAA~A'등급이 4.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전국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분포를 보면, 'BBB~B'등급이 97.5%, 'CCC~C'등급 1.4%, 'AAA~A'등급 1.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2] 창원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분포

신용등급	업체수	비중	전국비중	
AAA	0개 사	0.00%	4.60%	0.01%
AA	3개 사	0.20%		0.15%
A	66개 사	4.40%		0.93%
BBB	267개 사	17.80%	81.14%	4.23%
BB	370개 사	24.67%		25.74%
B	580개 사	38.67%		67.55%
CCC	191개 사	12.73%	14.27%	0.91%
CC	16개 사	1.07%		0.47%
C	7개 사	0.47%		0.01%

※ 자료 : 나이스신용정보

※ D, R, NR 등급 제외

[표 3] 중소기업 신용등급 및 정의

신용등급	등급 정의
A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R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자료 : 나이스신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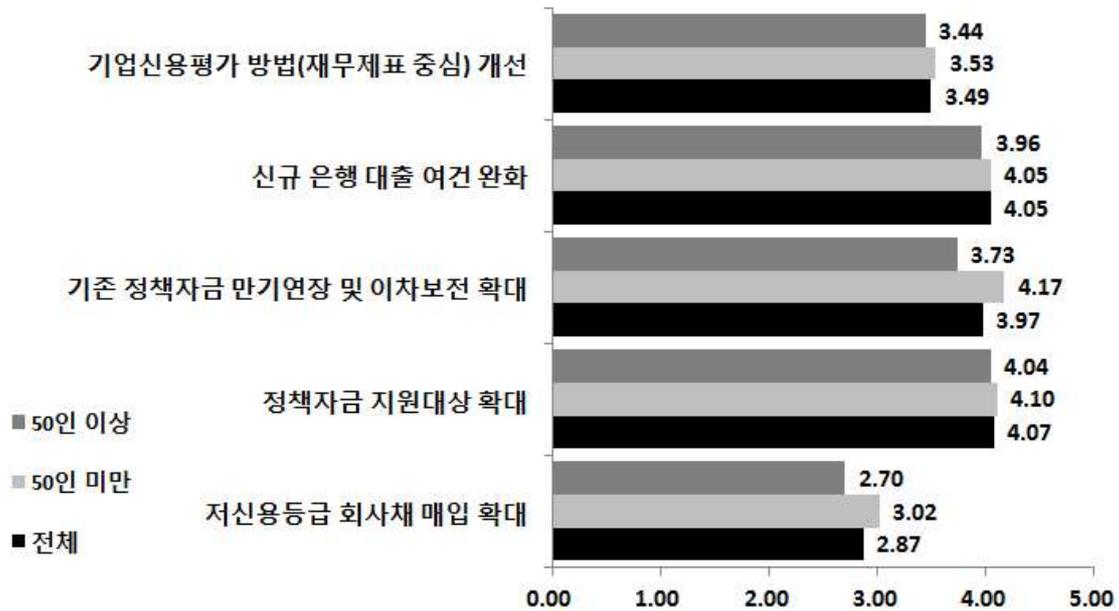
- 창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전국 기업의 신용등급 분포와 비교해 ‘AAA~A’등급의 비중이 높음과 더불어 ‘CCC~C’등급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창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중 ‘CCC’등급 비중이 12.7%로 매우 높은 수준임. ‘CCC’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의 경우 거래안정성에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해당기업은 금융권과 정책자금 활용에 크고 작은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높음. 더불어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 등 위기업종군에 속한 산업이 대거 분포한 창원산업의 특성상 비재무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낮음.
- 아울러 ‘CCC’ 이하 등급은 물론 ‘B’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림 3]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경영실적 전망’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 실적악화를 겪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재무제표로 옮겨져 2021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6)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금융정책들 중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가 4.07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사유와 같은 이유로 풀이됨.  
다음으로 ‘신규 은행 대출 여건 완화’ 4.05점, ‘기존 정책자금 만기연장 및 이차보전 확대’ 3.97점, ‘기업신용평가 방법(재무제표 중심) 개선’ 3.49점,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 확대’ 2.87점 순으로 나타났다.(시급성에 대한 인식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보통을 의미하고, 5에 가까울수록 시급함을 의미함)

[그림 1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별 시급한 정도 (n=118)

※ 0(보통이다) ~ 5(중요하다)



- 중소기업 금융의 특징 중 하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고 비대칭성이 높아 정확한 신용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임.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정보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신뢰성이 낮고 비대칭성이 높음.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금융권 활용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수급의 경우 담보와 한도의 한계성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조건이 유리한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정책에 보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담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50인 미만)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과 활용도 확대에 대해 시급한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시중은행과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있어 정책자금은 기업 유지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임.

- 시중은행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규 대출 여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 역시 소기업이 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음. 유보금, 담보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일수록 매출절벽에 따른 자금경색으로부터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시중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통해 유동성 공급의 수요로 이어지는 것임.
  
- 타 금융정책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도 소기업이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유동성 부족에 따른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 4. 시사점

- 창원산업 코로나19 확산 본격화한 4월 이후, 수출과 근로자 수 감소 뚜렷
-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추세 속, 시설자금 대비 운전자금 비중 확대
- 응답업체 72.8%, 경상비와 원부자재 구매,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운전자금 목적으로 자금수요 발생... 시중은행 통해 조달할 것
- 응답업체 21.6%. 올해 신규대출 거절 경험...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부족 이유
- 올해 대출 여건, 금리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대출한도와 신용대출 여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응답업체, 2020년 경영실적 큰 폭 하락 후 2021년 다소 회복 전망
- 올해 실적이 반영될 경우 신용등급 하방압력 클 것
- 창원 중소기업 신용등급 'B'(투자적격 중 가장 낮은 등급) 38.7%, 'CCC ~ C'(투자위험 등급) 14.3%, 대외외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클 것
-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신용등급의 하방경직화 또는 정부의 보증확대 등 선제적인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위축으로 창원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 수출입실적의 급감과 이에 따른 근로자 수 감소가 가시화했음. 수출실적의 감소는 곧 수출의존도가 높은 창원지역 기업의 매출 감소를 의미함. 실제로 2019년과 비교한 2020년, 2021년 경영실적 전망 조사에 응답한 창원 중소제조업체들은 2020년 매출실적을 전년과 비교해 82% 수준에 머물 것이며, 2021년에는 다소 회복한 8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20년 7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 78%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밖에 유동성(현금지급능력)과 산업환경 부문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어놓고 있음.

- 생산과 영업이익, 유동성과 산업환경 여건 등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들임. 올해 이와 같은 수준의 실적은 고스란히 내년 중소기업 신용등급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창원 중소제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분포의 경우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B’ 등급이 38.7%로 가장 많고, 그 이하의 등급(신용위험)인 ‘CCC~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14.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시중은행의 활용비율은 절대적인 수준임.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해야하는 시중은행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위험기피적 성향과 경기순응적 대출성향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신규 자금수요가 있음에도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부족, 신용등급 미달, 업황악화 등으로 대출실행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비중도 응답업체의 21.6%를 차지했음. 전반적인 은행 대출의 여건을 전년과 비교한 조사에서도 응답업체들은 금리여건을 제외한 신용대출 여건과 대출한도 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각종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담보와 신용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단,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와 담보능력 약화 등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금융권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처럼 경기침체기에는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높음.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경기침체기에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금리여건 완화 또는 기존 대출의 연장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침체로 인해 낮아진 담보력과 업황악화 등으로 신규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금융 및 재정지원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 자금공급의 주체인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에 비대칭이 존재하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일시적 유동성 절벽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완화해 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범위 확대, 재무정보 산입 연도 확대 등으로 신용등급의 하방경직성을 피하는 등 한시적 신용등급 평가 방식의 변화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제공을 위해 정부의 보증제도 확대 등이 필요함.